3천억대 땅 보상금 어디로…

■나주혁신도시 토지보상 실적 (1월3일 현재)

구분	보상대상	보상실적	보상률 (%)
소유자(명)	2,541	1,831	72.1
필지수	5,594	4,472	79.9
면적(㎡)	6,547,852	5,547,852	84.7
금액	2,942억원	2,495억원	84.8

나주 혁신도시 1월 현재 2,500억 지급

투자처 못찾은 1,500억 금융권 그대로

3천억원에 육박하는 나주혁신도시 토지보상금 가운데 80%가 넘는 2천500억원이 지급됐는데 이 돈은 모두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

추적결과 보상금의 절반이상은 투자처를 아직 찾지 못하고 새집마련 등도 보류한채 금융권에 우선 맡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1인당 평균보상액이 낮아 부동산 등 재투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예·적금으로 들어간 상태다.

이밖에 펀드나 주식투자로 이동했고 일부 가계자금 등으로 이용됐다는 게 지역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의 판단이다.

6일 한국토지공사 등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나주혁신도시의 토지보상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2천495억7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보상액(2천942억3천만원)의 84.8% 수준으로, 전체 소유자(2천541명) 가운데 72.1%(1천831명)가 보상금을 수령했다.

또 이들 수령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천여명은 지역 금융권에 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의 경우 지난해 토지보상 실시 이후 630여명의 보상금 수령자가 1천70억원의 예·적금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은행에도 320여명의 지주가 45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특판 및 일반 요구불예금의 형태로 돈을 맡겼다. 농협과 광주은행의 예금액을 합할 경우 전체 보상금의 절반 이상인 총 1천520억원이 지역 금융권으로 향한 것이다.

이처럼 보상금이 금융권으로 대거 몰린 것은 나주혁신도시의 1인당 평균 보상액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데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당수 지주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나주혁신도시는 전남의 땅값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탓에 3.3㎡당 평균 보상액이 14만8천원선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들의 1인당 토지보상액도 1억1천600만원대에 머물러 부동산 매입 등 재투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또 지난 2005년 이후 혁신도시 주변의 땅값이 혁신도시 예정지보다 높게 치솟은 것도 해당 지주들이 재투자를 외면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나주의 경우 토지보상작업 이전부터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이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보상금 가운데 상당액이 펀드 등 장기 상품으로 몰려 시중에 풀린 자금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지주들이 새집이나 거처마련 등에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어 보상금은 당분간 금융권의 상품에 묶여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리스크 관리 철저 '強小은행' 만들자"

정 태 석 광주은행장 신년사

정태석 광주은행장은 6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광주은행을 작지만 강한 '강소(强小)은행'으로 만들어 나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올해는 광주은행이 창립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광주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자산과 인원 등 모든 면에서 '작지만 어떤 경쟁도 이겨 낼 수 있는' 은행으로 만들겠다"고 새해 각오를 피력했다.

정 행장은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등은 인구 400만명에서 700만명의 작은 나라지만 약소국가로 보지 않는다"며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이처럼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강소국가가 됐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행장은 또 "내실경영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순이자 마진의 대폭적 개선과 수신기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올해 중요한 경영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 행장은 "광주은행장으로 재임한 지난 4년간 자산이 8조7천억원에서 18조5천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늘어날 만큼 성장을 거듭했다"면서 "올해는 이같은 외형적 성장보다 내실경영에 초점을 맞춰 어떠한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영구경쟁력을 정착화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행장은 "여신 부문의 확대는 은행의 외형 확대에 기여한 부분도 크지만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 요소도 높다"며 "올해 수신기반 확대를 선언한 것은 은행의 전통적 생존 기반인 수신에 역점을 둬 경영 안정화를 기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택배·퀵서비스 피해배상 300만원까지

물건 분실·훼손 등 … 공정위 표준약관 개·제정

택배업체의 물건 분실이나 훼손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고 퀵서비스로 인한 피해도 최고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퀵서비스의 배송이 일정 수준 이상 늦어지면 배송비를 모두 환불받을 수 있고 특히 지연으로 인해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배송비의 2배를 돌려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과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안을 의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택배 표준약관과 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손해배상한도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건의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객이 운송장에 배송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5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가격이 5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업체가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손해배상액도 물품가격대별 최고가액으로 하되 최고 300만원까지 받도록 규정했다. 또 배송물의 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업체는 배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배송물의 포장이 부적합할 경우 업체는 고객의 승낙을 얻어 다시 포장하고 포장비용은 고객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업체가 이런 포장의무를 무시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했다.

/연합뉴스

품질개선·신기술 '글로벌 경영' 강화

포스코 광양제철, 혁신과제 추진계획 발표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허남석)는 올해 2개 이상의 부서와 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해 품질개선과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혁신과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3일, 광양제철소는 허남석 광양제철소장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상반기 혁신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

혁신과제는 고유 강종이나 공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원과 관련 부서원들이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2006년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광양제철소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지난해 광양제철소는 자동차강판과 연계된 61개의 혁신과제를 수행해 도금윤활강판의 수출판매량을 3배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고용접성 도금강판 양산 기술을 개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광양제철소는 올 상반기엔 자동차강판 650만t 생산체제 완성과 고효율 생산 프로세스 구축 원가절감과 혁신활동 강화 등의 4대 전략에 기초한 55건의 대형 혁신과제를 추진해 세계 2위 자동차 강판 공급사로의 도약을 꾀할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국세청, 가짜 영수증 단속 강화

광주지방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의 전산분석을 통해 허위발급 혐의가 있는 단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 허위영수증 발급자와 부당하게 공제받은 근로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광주청 관계자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가짜 기부금영수증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국가 재정수입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매우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광주국세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시내 4개 사찰에 대한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조사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찰주지 4명과 근로자 4명을 구속하고, 근로자 18명은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중앙회 고객관리 평가

농협광주본부 '최우수'

농협광주지역본부가 지난해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고객관리부문 평가에서 최우수 지역본부로 선정됐다.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는 2007년을 '고객중심 경영의 해'로 정하고 CRM(고객관계관리마케팅) 생활화를 통해 하나로고객 성장률 전국 1위, 하나로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케팅캠페인 전국 1위, 일일 섭외활동 전국 1위 등 우수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연초 '스킨십 경영' 시동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연초부터 계열사 신입사원 및 임직원들과 신년 산행을 하면서 올해 화두로 제시한 '500년 영속 기반 구축'을 위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은 지난 5일 대우건설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 사장단 및 신입사원과 함께 경기도 광주 태화산을 오른데 이어 6일에는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과 북한산을 등반해 스킨십 경영을 실천했다.

이처럼 박 회장이 연초에 임직원들과 신년 산행을 연일 실시하는 이유는 각 계열사간의 일치단결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올해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500년 동안 영속할 수 있는 그룹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 박 회장은 오는 12일·13일에는 용인의 그룹 인재개발원에서 계열사 임원들을 불러 '임원 전략 경영 세미나'를 실시하고, 신년 음악회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해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늘리는 등 스킨십 경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